

##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홍 지 연\*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을 활성화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의도되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학생 364명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결과로 청소년들의 관심음악은 '대중음악', 클래식음악경험은 '악기레슨', 클래식악기 연주경험은 '있다', 경험악기로는 '피아노'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회 관람경험은 '경험없음'이 많았고, 관람동기는 '부모님이 추천해서', 관람장르는 중학생은 '오케스트라 연주회', 고등학생은 '독주회 혹은 독창회'가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클래식 음악 감상방법은 '인터넷으로', 감상시간은 '하루 30분 미만', 감상시기는 '설편', 클래식 감상이유로는 '마음에 안정을 준다', 인식은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음악'이 대체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클래식음악 필요성으로는 인격형성, 정서순화 및 감성교육, 삶의질등 문항 모두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주제어: 청소년, 클래식 음악, 인식도

###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자료처리

#### III. 연구결과

1.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음악관심 및 선호 음악 차이 분석
2.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경험 차이 분석
3.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악기 연주 차이 분석
4.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연주회 관람 차이 분석
5.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음악감상 차이 분석
6.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음악 필요성 차이 분석

#### IV. 논 의

#### V. 결론 및 제언

\* 목원대학교 성악, 뮤지컬학부 겸임교수

## I. 서론

모든 인간은 청소년기를 거친다.

청소년기란 미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발달해가는 과도기, 또는 아동과 성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주변인과의 갈등으로 가득한 질풍노도기, 신체, 정신, 심리 발달의 불균형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획득이 지연된 시기 등으로 불린다(박선미, 2008, pp. 3-4). 또한 청소년기는 지적발달, 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며 나아가 이후의 인생의 준비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의 부족이나 대처 전략의 미숙으로 인해(심희옥, 1995, p. 95), 정신적, 육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서가 불안해지기 쉬우며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는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박선미, 2008, p. 4). 즉, 청소년기는 아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격체로서 거치는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돌발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음악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의 도구이자 갈등과 스트레스로 부터의 피난처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폰, TV, 라디오, MP3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음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대인의 삶 속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으로 하여금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게 하고 한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함축시키기도 한다(박미라, 2010, p. 1). 또한 멜로디, 하모니, 리듬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표출, 사고 그리고 신체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로, 고대로부터 음악은 인간의 정서함양을 위해 쓰였고,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오기도 했다(박선미, 2003, p. 10).

음악은 음으로 사고하고 감동하고 표현하는 예술로서 모든 예술 가운데 가장 직선적으로 인간을 감동시키는 힘이 가장 강한 특성을 지닌다(안종배, 1991, p. 9). 다양한 음악 형태 중에서도 특히 클래식음악은 인간에 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인간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깊이 맛보게 해주는 고차원의 음악이며, 대중음악처럼 시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변하기 보다는 몇 백 년이 흘러도 인간의 감성에 도움을 주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음악으로 역사 속에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이다(박수진, 2007, p. 1). 또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음악적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음악적 형식 또한 인간들의 삶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편안함을 안겨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영선, 2008, p. 48).

이에 조영선(2008, pp. 4-5)의 연구에 의하면, 클래식음악의 형식적 아름다움이 규칙적이고, 정해져 있는 조표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클래식음악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규명되어지고 있다.

먼저 커다란 의미에서 음악과 청소년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 박선미(2008, p. 10)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하면, 인지구조의 발달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미적감각을 길러주고 감성을 계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재성(2000, p. 48)은 합창을 통한 음악교육이 정서적으로 책임감, 협동심, 사회성 등의 심성개발 활동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권오륜(2001, pp. 36-37)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감상수업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클래식음악과 관련된 연구로는 중국대학생들의 클래식음악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한 비교연구(권결, 2004),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 감상과 관련된 연구를 김봉순(2007), 김정미(2007), 김주경(2007), 김진옥(2006), 조영선(2008), 허용순(2006)이 수행 하였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관련된 연구를 임성은(2006), 백영미(2009)가 수행하였다. 상기 나열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클래식음악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규명되었지만 청소년과 음악 감상과의 관계성 규명, 학교 시험 및 사회성 함양, 학습방안 연구 등에 치우쳐 있음이 확인되었다.

클래식음악과 청소년의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에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 규명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가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 필요성, 선호도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 선호도 조사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들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파악할 때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밝혀진 연구는 1997년도에 수행된 박외자의 고등학교 1학년생의 클래식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가 있다. 상기 연구 또한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지를 밝히는데 국한되어 연구되었으므로 좀 더 넓은 범위의 인식도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외에 송주호, 정혜명(2010)이 청소년들의 음악적 취향과 인식에 관한 현황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클래식음악, 대중음악, 국악 등 음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는 드문 것이 사실이며, 이 시점에서 해당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중, 고등학생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을 활성화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을 통해 클래식음악을 접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음악이 지닌 예술적, 미적가치를 느끼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교과목으로서의 음악의 위치가 달라질 수(신새롭, 2011, p. 1) 있기에 학교교육 측면에서도 새로운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음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
2.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음악교육 경험 정도는 어떠한가?
3.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악기연주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4.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연주회 관람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5.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음악 감상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6.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소재 4곳에 위치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을 편의표

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다. 사전에 해당 학교의 음악선생님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한 후 2013년 7월 15일부터 19일, 8월 19일-23일에 해당학교 음악시간에 간단한 연구목적의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생 200부, 고등학생 200부 총 400부의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그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을 제외한 364부의 설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 구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성별   | 남자   | 182   | 50     |
|      | 여자   | 182   | 50     |
| 학교수준 | 중학생  | 188   | 51.6   |
|      | 고등학생 | 176   | 48.4   |

## 2. 조사도구

청소년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은 임은정(2010), 김현주(2010), 박지연(2011)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음악 교육경험 및 음악에 대한 관심 4문항, 클래식 음악 관심 및 연주회 관람 4문항, 클래식 악기경험 5문항, 클래식음악 감상 5문항, 클래식음악 필요성 6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2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 구성 지표             | 구성 내용                                           | 문항수 |
|-------------------|-------------------------------------------------|-----|
| 음악 경험 및 음악 관심     | 음악관심도, 관심장르, 음악교육경험, 음악교육경험종류,                  | 4   |
| 악기경험              | 악기경험, 경험동기, 경험악기, 희망악기                          | 4   |
| 클래식음악 관심 및 연주회 관람 | 클래식음악관심, 연주회관람횟수, 연주회 관람동기, 연주회 관람 장르           | 5   |
| 클래식음악 감상          | 클래식음악 감상 방법, 감상시간, 감상시기, 감상느낌, 음악인식, 감상이유       | 5   |
| 클래식음악 필요성         | 인격형성, 정서순화 및 감성교육, 삶의 질, 창의성 신장, 좋은 감정, 음악능력 향상 | 6   |
| 인구통계학적특성          | 성별, 학교수준                                        | 2   |
| 전체                |                                                 | 26  |

### 3. 자료처리

최종적으로 채택된 청소년 364명을 대상으로 SPSS WIN Ver. 18.0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기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별에 따른 성별 및 학교수준별 클래식음악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결과 도출에 최적화를 기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음악관심 및 선호음악 차이 분석

<표 3>은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음악관심도와 관심음악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별 음악관심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급별에 따른 성별 차이분석 결과 중학생은 성별에 따라 음악관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음악에 관심 '있다'(중학생: 77.7%, 고등학생: 82.4%)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응답역시 '있다'(중학생 남학생: 63.5%, 중학생 여학생: 92.5%, 고등학생 남학생: 76.7%, 고등학생 여학생: 87.8%)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교 여학생들의 음악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관심음악 차이분석 결과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성별에 대한 관심음악 차이분석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관심음악, 즉 음악선호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중음악', '관심없다', '클래식음악', '기타', '우리전통음악'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중, 고등학생 모두 '대중음악'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남

학생과 고등학생 남학생은 ‘관심없다’, ‘클래식음악’의 순으로, 중학생 여학생과 고등학생 여학생은 ‘클래식음악’, ‘관심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들의 관심음악에 대한 분석 결과

|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음악 관심 | 있다             | 61(63.5)                | 85(92.4)  | 146(77.7)  | 66(76.7)               | 79(87.8)  | 145(82.4)  | 291(79.9)  |
|       | 없다             | 35(36.5)                | 7(7.6)    | 42(22.3)   | 20(23.3)               | 11(12.2)  | 31(17.6)   | 73(20.1)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22.537, p=.000$ |           |            | $\chi^2=3.689, p=.074$ |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1.267, p=.295$  |           |            |                        |           |            |            |
| 관심음악  | 클래식음악          | 11(11.5)                | 13(14.1)  | 24(12.8)   | 9(10.5)                | 16(17.8)  | 25(14.3)   | 49(16.8)   |
|       | 우리전통음악         | 1(1.0)                  | 0(0.0)    | 1(0.5)     | 0(0.0)                 | 0(0.0)    | 0(0.0)     | 1(0.3)     |
|       | 대중음악           | 48(50.0)                | 72(78.3)  | 120(63.8)  | 55(64.0)               | 62(68.9)  | 117(66.5)  | 237(81.4)  |
|       | 기타             | 1(1.0)                  | 0(0.0)    | 1(0.5)     | 2(2.3)                 | 1(1.1)    | 3(1.7)     | 4(1.4)     |
|       | 관심없다           | 36(37.5)                | 7(7.6)    | 42(22.3)   | 20(23.3)               | 11(12.2)  | 31(17.6)   | 73(20.1)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3.204, p=.361$  |           |            | $\chi^2=1.623, p=.444$ |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2.055, p=.561$  |           |            |                        |           |            |            |

## 2.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정규교과 이외 클래식음악 교육 경험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교육경험 종류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는데, 학교급별 클래식음악 경험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따른 성별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성별에 따라 클래식음악 교육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 교육경험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 좀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성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 클래식음악 경험 종류에는  $p<.05$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 교육경험 종류는 전체적으로 ‘악기레슨’, ‘경험없음’, ‘음악이론레슨’, ‘성악레슨’, ‘기타’, ‘작곡레슨’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중학생 남학생은 ‘악기레슨’, ‘경험없음’, ‘성악레슨’, ‘기타’의 순으로, 중학생 여학생은 ‘악기레슨’, ‘성악레슨’, ‘음악이론레슨’의 순으로 나

타났다. 고등학생 남학생은 ‘악기레슨’, ‘경험없음’, ‘성악레슨’, ‘음악이론레슨’, ‘기타’의 순으로, 고등학생 여학생은 ‘악기레슨’, ‘경험없음’, ‘작곡레슨’, ‘음악이론레슨’,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 교육경험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

|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음악교육경험 | 있다             | 74(77.1)                 | 91(98.9)  | 165(87.8)  | 71(82.6)               | 78(86.7)  | 149(84.7)  | 314(86.3)  |
|        | 없다             | 22(22.9)                 | 1(1.1)    | 23(12.2)   | 15(17.4)               | 12(13.3)  | 27(15.3)   | 50(13.7)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 20.850, p=.000$ |           |            | $\chi^2= .572, p=.532$ |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 .740, p=.447$   |           |            |                        |           |            |            |
| 경험악기   | 악기레슨           | 67(69.8)                 | 76(82.6)  | 143(76.1)  | 65(75.6)               | 75(83.3)  | 140(79.5)  | 283(77.7)  |
|        | 성악레슨           | 3(3.1)                   | 2(2.2)    | 5(2.7)     | 4(4.7)                 | 0(0.0)    | 4(2.3)     | 9(2.5)     |
|        | 작곡레슨           | 1(1.0)                   | 1(1.1)    | 2(1.1)     | 0(0.0)                 | 1(1.1)    | 1(0.6)     | 3(0.8)     |
|        | 음악이론레슨         | 1(1.0)                   | 11(12.0)  | 12(6.4)    | 1(1.2)                 | 1(1.1)    | 2(1.1)     | 14(3.8)    |
|        | 기타             | 2(2.1)                   | 1(1.1)    | 3(1.6)     | 1(1.2)                 | 1(1.1)    | 2(1.1)     | 5(1.4)     |
|        | 경험없음           | 22(22.9)                 | 1(1.1)    | 23(12.2)   | 15(17.4)               | 12(13.3)  | 27(15.3)   | 50(13.7)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 7.764, p=.101$  |           |            | $\chi^2=5.397, p=.249$ |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7.022, p=.135$   |           |            |                        |           |            |            |

### 3.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악기 연주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악기 연주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학교급별 연주경험 악기종류 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주경험 유무, 연주동기, 희망악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연주경험, 연주동기, 연주경험 악기, 희망악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희망악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경험은 학교급별 성별 모두 ‘있다’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주동기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모두 중학생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개인적으로’는 학교급별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연주동기를 ‘학교에서’, ‘개인적으로’순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주 해본 경험이 있는 악기로는 ‘바이올린’, ‘피아노’는 중학생에게서, ‘첼로’,

‘플룻’, ‘비올라’, ‘클라리넷’은 고등학생에게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바이올린’, ‘첼로’는 학교급별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플룻’은 중학생은 여학생이, 고등학생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피아노’는 중학생은 남, 녀 모두 가장 많이 연주해본 악기로 나타났지만, 중,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클라리넷’은 중학생은 남학생이, 고등학생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없음’을 제외한 높은 응답률을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플룻’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타의 응답으로는 ‘기타’와 ‘드럼’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악기는 학교급별로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중학생은 ‘바이올린’, ‘첼로’, ‘플룻’, ‘비올라’는 중학교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피아노’, ‘클라리넷’은 중학생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남학생의 응답률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인 반면 여학생은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청소년들의 클래식악기 연주에 대한 분석 결과

|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 연주 경험          | 있다             | 83(86.5)                | 91(98.9)                | 174(92.6)  | 77(89.5)               | 83(92.2)  | 160(90.9)  | 334(91.8)  |  |
|                | 없다             | 13(13.5)                | 1(1.1)                  | 14(7.4)    | 9(10.5)                | 7(7.8)    | 16(9.1)    | 30(8.2)    |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 성별 $\chi^2$    | $\chi^2=10.573, p=.001$ |                         |            | $\chi^2=.384, p=.606$  |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325, p=.575$   |                         |            |                        |           |            |            |  |
| 연주 동기          | 학교에서           | 14(14.6)                | 10(10.9)                | 24(12.8)   | 12(14.0)               | 11(12.2)  | 23(13.1)   | 47(12.9)   |  |
|                | 개인적으로          | 69(71.9)                | 81(88.0)                | 150(79.8)  | 65(75.6)               | 72(80.0)  | 137(77.8)  | 287(78.8)  |  |
|                | 경험없음           | 13(13.5)                | 1(1.1)                  | 14(7.4)    | 9(10.5)                | 7(7.8)    | 16(9.1)    | 30(8.2)    |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 성별 $\chi^2$    | $\chi^2=11.833, p=.003$ |                         |            | $\chi^2=.561, p=.756$  |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348, p=.840$   |                         |            |                        |           |            |            |  |
| 연주 악기          | 바이올린           | 26(27.1)                | 30(32.6)                | 56(29.8)   | 18(20.9)               | 29(32.2)  | 47(26.7)   | 103(28.3)  |  |
|                | 첼로             | 3(3.1)                  | 5(5.4)                  | 8(4.3)     | 8(9.3)                 | 10(11.1)  | 18(10.2)   | 26(7.1)    |  |
|                | 플룻             | 2(2.1)                  | 10(10.9)                | 12(6.4)    | 11(12.8)               | 8(8.9)    | 19(10.8)   | 31(8.5)    |  |
|                | 비올라            | 0(0.0)                  | 0(0.0)                  | 0(0.0)     | 1(1.2)                 | 0(0.0)    | 1(0.6)     | 1(0.3)     |  |
|                | 피아노            | 47(49.0)                | 46(50.0)                | 93(49.5)   | 32(37.2)               | 30(33.3)  | 62(35.2)   | 155(42.6)  |  |
|                | 클라리넷           | 1(1.0)                  | 0(0.0)                  | 1(0.5)     | 3(3.5)                 | 4(4.4)    | 7(4.0)     | 8(2.2)     |  |
|                | 경험없음           | 13(13.5)                | 1(1.1)                  | 14(7.4)    | 9(10.5)                | 7(7.8)    | 16(9.1)    | 30(8.2)    |  |
|                | 기타             | 4(4.2)                  | 0(0.0)                  | 4(2.1)     | 4(4.7)                 | 2(2.2)    | 6(3.4)     | 10(2.8)    |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 성별 $\chi^2$    | $\chi^2=24.045, p=.000$ |                         |            | $\chi^2=5.117, p=.529$ |           |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18.543, p=.005$ |            |                        |           |            |            |  |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 남학생                     | 중학생<br>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고등학생<br>여학생 | 전체        |            |            |
| 희<br>망<br>악<br>기 | 바이올린                    | 8(8.3)     | 19(20.7)  | 27(14.4)                | 11(12.8)    | 14(15.6)  | 25(14.2)   | 52(14.3)   |
|                  | 첼로                      | 14(14.6)   | 23(25.0)  | 37(19.7)                | 11(12.8)    | 25(27.8)  | 36(20.5)   | 73(20.1)   |
|                  | 플루트                     | 3(3.1)     | 17(18.5)  | 20(10.6)                | 4(4.7)      | 10(11.1)  | 14(8.0)    | 34(9.3)    |
|                  | 비올라                     | 1(1.0)     | 4(4.3)    | 5(2.7)                  | 1(1.2)      | 2(2.2)    | 3(1.7)     | 8(2.2)     |
|                  | 피아노                     | 24(25.0)   | 10(10.9)  | 34(18.1)                | 16(18.6)    | 16(17.8)  | 32(18.2)   | 66(18.1)   |
|                  | 클라리넷                    | 4(4.2)     | 3(3.3)    | 7(3.7)                  | 9(10.5)     | 9(10.0)   | 18(10.2)   | 25(6.9)    |
|                  | 기타                      | 11(11.5)   | 9(9.8)    | 20(10.6)                | 8(9.3)      | 10(11.1)  | 18(10.2)   | 38(10.4)   |
|                  | 희망악기없음                  | 31(32.3)   | 7(7.6)    | 38(20.2)                | 26(30.2)    | 4(4.4)    | 30(17.0)   | 68(18.7)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35.764, p=.000$ |            |           | $\chi^2=16.960, p=.009$ |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7.106, p=.311$  |            |           |                         |             |           |            |            |

#### 4.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연주회 관람 차이 분석

##### 1)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 연주회 관람경험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연주회 관람경험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는데, 학교급별 연주회 관람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회 관람경험은 중학생은 ‘경험없음’, ‘1회’, ‘2회’, ‘5회 이상’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경험없음’, ‘1회’, ‘2회’, ‘4회’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경험없음’의 응답은 남학생이 높았던 반면, ‘1회’응답으로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소년들의 연주회 관람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경험없음           | 55(57.3)                | 38(41.3)  | 93(49.5)   | 26(30.2)               | 24(26.7)  | 50(28.4)   | 143(39.3)  |
| 1회             | 18(18.8)                | 31(33.7)  | 49(26.1)   | 33(38.4)               | 39(43.3)  | 72(40.9)   | 121(33.2)  |
| 2회             | 10(10.4)                | 9(9.8)    | 19(10.1)   | 14(16.3)               | 12(13.3)  | 26(14.8)   | 45(12.4)   |
| 3회             | 5(5.2)                  | 5(5.4)    | 10(5.3)    | 4(4.7)                 | 5(5.6)    | 9(5.1)     | 19(5.2)    |
| 4회             | 1(1.0)                  | 3(3.3)    | 4(2.1)     | 5(5.8)                 | 6(6.7)    | 11(6.3)    | 15(4.1)    |
| 5회이상           | 7(7.3)                  | 6(6.5)    | 13(6.9)    | 4(4.7)                 | 4(4.4)    | 8(4.5)     | 21(5.8)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9.550, p=.089$  |           |            | $\chi^2=1.488, p=.914$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15.493, p=.008$ |           |            |                        |           |            |            |

## 2)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연주회 관람동기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수준별 성별에 따른 연주회 관람동기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는데, 학교급별 연주회 관람 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중학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회 관람동기는 성별에 따라 학교급별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교에서 단체로’의 응답은 중학생은 남학생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높았고, ‘선생님이 추천해서’는 중학생은 여학생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부모님이 추천해서’, ‘지인의 연주회 초대로’, ‘스스로 선택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들의 연주회 관람동기에 대한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학교에서단체로        | 5(5.2)                  | 2(2.2)    | 7(3.7)     | 7(8.2)                      | 8(8.9)    | 15(8.5)    | 22(6.0)    |
| 선생님이 추천해서      | 1(1.0)                  | 2(2.2)    | 3(1.6)     | 6(7.0)                      | 4(4.4)    | 10(5.7)    | 13(3.6)    |
| 스스로 선택해서       | 4(4.2)                  | 12(13.0)  | 16(8.5)    | 7(8.1)                      | 13(14.4)  | 20(11.4)   | 36(9.9)    |
| 부모님이 추천해서      | 16(15.6)                | 21(22.8)  | 37(19.7)   | 22(25.6)                    | 18(20.0)  | 40(22.7)   | 77(21.2)   |
| 우연히            | 6(6.3)                  | 2(2.2)    | 8(4.3)     | 10(11.6)                    | 6(6.7)    | 16(9.1)    | 24(6.6)    |
| 지인의 연주회 초대로    | 7(7.3)                  | 14(15.2)  | 21(11.2)   | 8(9.3)                      | 15(16.7)  | 23(13.1)   | 44(12.1)   |
| 기타             | 2(3.1)                  | 1(1.1)    | 3(1.5)     | 0(0.0)                      | 2(2.2)    | 2(1.1)     | 5(1.3)     |
| 경험없음           | 55(57.3)                | 38(41.3)  | 93(49.5)   | 26(30.2)                    | 24(26.7)  | 50(28.4)   | 143(39.3)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13.297, p=.039$ |           |            | $\chi^2=5.939 \quad p=.430$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24.133, p=.000$ |           |            |                             |           |            |            |

## 3)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연주회 관람장르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연주회 관람장르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는데, 학교급별 연주회장르 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장르는 학교급별에 따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오케스트라 연주회’, ‘독주회 혹은 독창회’, ‘실내악, 앙상블’의 순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실내악, 앙상블’의 경우에는 중학생 남학생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중학생은 여학생이, 고

등학생은 남학생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8> 청소년들의 연주회 관람장르에 대한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남학생                      | 중학생<br>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고등학생<br>여학생 | 전체         |            |
| 경험없음           | 55(57.3)                 | 38(41.3)   | 93(49.5)   | 26(30.2)                | 24(26.7)    | 50(28.4)   | 143(39.3)  |
| 독주회 혹은 독창회     | 9(9.4)                   | 16(17.4)   | 25(13.3)   | 22(25.6)                | 26(28.9)    | 48(27.3)   | 73(20.1)   |
| 실내악, 앙상블       | 5(5.2)                   | 3(3.3)     | 8(4.3)     | 12(14.0)                | 17(18.9)    | 29(16.5)   | 37(10.2)   |
| 오케스트라 연주회      | 23(24.0)                 | 33(35.9)   | 56(29.8)   | 24(27.9)                | 20(22.2)    | 44(25.0)   | 100(27.5)  |
| 작곡발표회          | 0(0.0)                   | 0(0.0)     | 0(0.0)     | 1(1.2)                  | 1(1.1)      | 2(1.1)     | 2(0.5)     |
| 기타             | 4(4.2)                   | 2(2.2)     | 6(3.2)     | 1(1.2)                  | 2(2.2)      | 3(1.7)     | 9(2.5)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8.210$ , p=.084  |            |            | $\chi^2=3.742$ , p=.587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36.047$ , p=.000 |            |            |                         |             |            |            |

## 5.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에 대한 차이 분석

### 1)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방법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 방법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참조). 그 결과 학교급별 클래식음악 감상 방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로’, ‘집에있는 음반으로’, ‘음악회에 직접가서’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교수준별 성별에 따라 응답률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음악회에 직접가서’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로’는 중학생은 남학생이,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9> 청소년의 클래식음악 감상 방법 차이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인터넷으로          | 54(56.3)                | 55(59.8)  | 109(58.0)  | 24(27.9)               | 33(36.7)  | 57(32.4)   | 166(45.6)  |
| 음악회에 직접가서      | 4(4.2)                  | 3(3.3)    | 7(3.7)     | 9(10.5)                | 10(11.1)  | 19(10.8)   | 26(7.1)    |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로 | 20(20.8)                | 18(19.6)  | 38(20.2)   | 24(27.9)               | 25(27.8)  | 49(27.8)   | 87(23.9)   |
| 집에있는 음반으로      | 9(9.4)                  | 11(12.0)  | 20(10.6)   | 12(14.0)               | 14(15.6)  | 26(14.8)   | 46(12.6)   |
| 기타             | 9(9.4)                  | 5(5.4)    | 14(7.4)    | 17(19.8)               | 8(8.9)    | 25(14.2)   | 39(10.7)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1.516, p=.824$  |           |            | $\chi^2=4.800, p=.308$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26.737, p=.000$ |           |            |                        |           |            |            |

## 2)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시간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 시간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학교급별 클래식음악 감상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의 하루 평균 감상시간은 학교급별에 따라서 ‘30분 미만’, ‘안듣는다’, ‘30분-1시간미만’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은 중학생이, ‘30분-1시간 미만’은 고등학생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중학생의 경우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1시간 이상’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30분 미만’은 남, 녀 같은 비율로, ‘30분-1시간 미만’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청소년의 클래식음악 감상 시간 차이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안듣는다           | 37(38.5)               | 31(33.7)  | 68(36.2)   | 28(32.6)               | 27(30.0)  | 55(31.3)   | 123(33.8)  |
| 30분 미만         | 46(47.9)               | 49(53.3)  | 95(50.5)   | 41(47.7)               | 41(45.6)  | 82(46.6)   | 177(48.6)  |
| 30분-1시간 미만     | 7(7.3)                 | 10(10.9)  | 17(9.0)    | 14(16.3)               | 20(22.2)  | 34(19.3)   | 51(14.0)   |
| 1시간 이상         | 6(6.3)                 | 2(2.2)    | 8(4.3)     | 3(3.5)                 | 2(2.2)    | 5(2.8)     | 13(3.6)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3.070, p=.381$ |           |            | $\chi^2=1.187, p=.756$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8.301, p=.040$ |           |            |                        |           |            |            |

## 3)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시기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 시기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참조). 그 결과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감상시기는 ‘설때’는 중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공부할 때’, ‘이동중에’는 고등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설때’는 중학생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높았고, ‘잘때’는 중학생은 남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좀 더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설때’, ‘이동중에’, ‘공부할때’의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냈지만, ‘안듣는다’의 의견도 3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lt;표 11&gt; 청소년의 클래식음악 감상 시기 차이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절때             | 30(31.3)               | 34(37.0)  | 64(34.0)   | 27(31.4)               | 25(27.8)  | 52(29.5)   | 116(31.9)  |
| 공부할때           | 9(9.4)                 | 10(10.9)  | 19(10.1)   | 8(9.3)                 | 13(14.4)  | 21(11.9)   | 40(11.0)   |
| 이동중에           | 7(7.3)                 | 8(8.7)    | 15(8.0)    | 15(17.4)               | 16(17.8)  | 31(17.6)   | 46(12.6)   |
| 잘때             | 9(9.4)                 | 6(6.5)    | 15(8.0)    | 4(4.7)                 | 5(5.6)    | 9(5.1)     | 24(6.6)    |
| 안듣는다           | 37(38.5)               | 31(33.7)  | 68(36.2)   | 28(32.6)               | 27(30.0)  | 55(31.3)   | 123(33.8)  |
| 기타             | 4(4.1)                 | 3(3.2)    | 7(3.7)     | 4(3.7)                 | 4(4.4)    | 8(4.6)     | 15(4.1)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1.538, p=.820$ |           |            | $\chi^2=1.336, p=.855$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9.064, p=.060$ |           |            |                        |           |            |            |

## 4)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이유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이유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학교급별 클래식음악 감상이유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따른 성별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클래식음악 감상이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 감상이유로 ‘마음에 안정을 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기분이 전환되고 명랑해진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중학생 모두 같은 응답률을 보인 반

면,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분이 전환되고 명랑해진다’는 중, 고등학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남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음악감상 이유는 ‘마음에 안정을 준다’, ‘기분이 전환되고 명랑해진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 감상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
| 마음에 안정을 준다     | 44(45.8)                 | 44(47.8)  | 88(46.8)   | 27(31.4)                | 34(37.8)  | 61(34.7)   | 149(40.9)  |
| 기분이 전환되고 명랑해진다 | 20(20.8)                 | 22(23.9)  | 42(22.3)   | 21(24.4)                | 28(31.1)  | 49(27.8)   | 91(25.0)   |
|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 8(8.3)                   | 5(5.4)    | 13(6.9)    | 14(16.3)                | 13(14.4)  | 27(15.3)   | 40(11.0)   |
| 활동성이 높아진다      | 2(2.1)                   | 1(1.1)    | 3(1.6)     | 9(10.5)                 | 7(7.8)    | 16(9.1)    | 19(5.2)    |
| 기타             | 22(22.9)                 | 20(21.7)  | 42(22.3)   | 15(17.4)                | 8(8.9)    | 23(13.1)   | 65(17.9)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1.132$ p=.889    |           |            | $\chi^2=4.132$ , p=.388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24.411$ , p=.000 |           |            |                         |           |            |            |

##### 5)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인식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 느낌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3>과 같이 학교급별 클래식음악 감상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감상인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성별에 따라 클래식음악 감상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 인식은 ‘인품을 고상하게 하고 교양을 높여주는 음악’,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음악’, 예술적 가치에 심화되는 음악,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음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인품을 고상하게 하고 교양을 높여주는 음악’과 ‘예술적 가치에 심화되는 음악’의 응답은 중학생은 남학생이 높은 반면 그 외의 문항에서는 학년수준에 따라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음악’, ‘인품을 고상하게 하고 교양을 높여주는 음악’, ‘예술적 가치에 심화되는 음악’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3&gt; 청소년의 클래식음악 감상 느낌 차이 분석 결과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남학생                     | 중학생<br>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고등학생<br>여학생 | 전체         |            |
| 인품을 고상하게 하고 교양을 높여주는 음악 | 19(19.8)                | 16(17.4)   | 35(18.6)   | 15(17.4)                | 18(20.0)    | 33(18.8)   | 68(18.7)   |
|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음악         | 36(37.5)                | 59(64.1)   | 95(50.5)   | 38(44.2)                | 46(51.1)    | 84(47.7)   | 179(49.2)  |
|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        | 11(11.5)                | 1(1.1)     | 12(6.4)    | 16(18.6)                | 7(7.8)      | 23(13.1)   | 35(9.6)    |
| 예술적 가치에 심화되는 음악         | 16(16.7)                | 15(16.3)   | 31(16.5)   | 8(9.3)                  | 16(17.8)    | 24(13.6)   | 55(15.1)   |
|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음악           | 14(14.6)                | 1(1.1)     | 15(8.0)    | 9(10.5)                 | 3(3.3)      | 12(6.8)    | 27(7.4)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성별 $\chi^2$             | $\chi^2=25.384, p=.000$ |            |            | $\chi^2=10.137, p=.038$ |             |            |            |
| 학교수준별 $\chi^2$          | $\chi^2=5.026, p=.285$  |            |            |                         |             |            |            |

## 6.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필요성차이 분석

<표 14>는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필요성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학교급별에 따른 클래식음악 필요성 차이는 인격형성, 정서순화 및 감성교육, 삶의 질, 창의성신장, 좋은 감정, 음악능력향상 모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성별의 차이분석결과 중학생은 인격형성, 삶의 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생은 정서 순화 및 감성교육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클래식음악 필요성 중 인격형성, 정서순화 및 감성 교육, 삶의 질, 창의성신장, 음악능력향상은 학교급별 모두 ‘보통이다’에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보통이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그렇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클래식음악 필요성 중 좋은 감정은 중학생은 ‘보통이다’, ‘그렇다’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그렇다’, ‘매우그렇다’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중학생은 ‘그렇다’, ‘매우그렇다’ 모두 여학생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보통이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그렇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4&gt; 청소년의 클래식음악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                           |             | 학교급                     |           |            |                         |           |            | 전체         |
|---------------------------|-------------|-------------------------|-----------|------------|-------------------------|-----------|------------|------------|
|                           |             | 중학생                     |           |            | 고등학생                    |           |            |            |
|                           |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
| 인격<br>형성                  | 전혀그렇지않다     | 2(2.1)                  | 1(1.1)    | 3(1.6)     | 2(2.3)                  | 0(0.0)    | 2(1.1)     | 5(1.4)     |
|                           | 그렇지않다       | 8(8.3)                  | 1(1.1)    | 9(4.8)     | 5(5.8)                  | 4(4.4)    | 9(5.1)     | 18(4.9)    |
|                           | 보통이다        | 45(46.9)                | 30(32.6)  | 75(39.9)   | 34(39.5)                | 31(34.4)  | 65(36.9)   | 140(38.5)  |
|                           | 그렇다         | 33(34.4)                | 50(54.3)  | 83(44.1)   | 35(40.7)                | 44(48.9)  | 79(44.9)   | 162(44.5)  |
|                           | 매우그렇다       | 8(8.3)                  | 10(10.9)  | 18(9.6)    | 10(11.6)                | 11(12.2)  | 21(11.9)   | 39(10.7)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12.402, p=.015$ |           |            | $\chi^2=3.233, p=.520$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849, p=.932$   |           |            |                         |           |            |            |
| 정서<br>순화<br>및<br>감성<br>교육 | 전혀그렇지않다     | 3(3.1)                  | 0(0.0)    | 3(1.6)     | 2(2.3)                  | 0(0.0)    | 2(1.1)     | 5(1.4)     |
|                           | 그렇지않다       | 9(9.4)                  | 2(2.2)    | 11(5.9)    | 4(4.7)                  | 2(2.2)    | 6(3.4)     | 17(4.7)    |
|                           | 보통이다        | 35(36.5)                | 30(32.6)  | 65(34.6)   | 39(45.3)                | 25(27.8)  | 64(36.4)   | 129(35.4)  |
|                           | 그렇다         | 35(36.5)                | 45(48.9)  | 80(42.6)   | 33(38.4)                | 51(56.7)  | 84(47.7)   | 164(45.1)  |
|                           | 매우그렇다       | 14(14.6)                | 15(16.3)  | 29(15.4)   | 8(9.3)                  | 12(13.3)  | 20(11.4)   | 49(13.5)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9.043, p=.060$  |           |            | $\chi^2=10.301, p=.036$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3.037, p=.552$  |           |            |                         |           |            |            |
| 삶의<br>질                   | 전혀그렇지않다     | 3(3.1)                  | 0(0.0)    | 3(1.6)     | 2(2.3)                  | 0(0.0)    | 2(1.1)     | 5(1.4)     |
|                           | 그렇지않다       | 11(11.5)                | 4(4.3)    | 15(8.0)    | 1(1.2)                  | 4(4.4)    | 5(2.8)     | 20(5.5)    |
|                           | 보통이다        | 42(43.8)                | 31(33.7)  | 73(38.8)   | 41(47.7)                | 32(35.6)  | 73(41.5)   | 146(40.1)  |
|                           | 그렇다         | 32(33.3)                | 40(43.5)  | 72(38.3)   | 35(40.7)                | 42(46.7)  | 77(43.8)   | 149(40.9)  |
|                           | 매우그렇다       | 8(8.3)                  | 17(18.5)  | 25(13.3)   | 7(8.1)                  | 12(13.3)  | 19(10.8)   | 44(12.1)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11.973, p=.018$ |           |            | $\chi^2=6.774, p=.148$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5.797, p=.215$  |           |            |                         |           |            |            |
| 창의<br>성<br>신장             | 전혀그렇지않다     | 1(1.0)                  | 0(0.0)    | 1(0.5)     | 2(2.3)                  | 0(0.0)    | 2(1.1)     | 3(0.8)     |
|                           | 그렇지않다       | 15(15.6)                | 9(9.8)    | 24(12.8)   | 5(5.8)                  | 8(8.9)    | 13(7.4)    | 37(10.2)   |
|                           | 보통이다        | 45(46.9)                | 40(43.5)  | 85(45.2)   | 45(52.3)                | 35(38.9)  | 80(45.5)   | 165(45.3)  |
|                           | 그렇다         | 27(28.1)                | 34(37.0)  | 61(32.4)   | 24(27.9)                | 34(37.8)  | 58(33.0)   | 119(32.7)  |
|                           | 매우그렇다       | 8(8.3)                  | 9(9.8)    | 17(9.0)    | 10(11.6)                | 13(14.4)  | 23(13.1)   | 40(11.0)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3.573, p=.467$  |           |            | $\chi^2=5.970, p=.201$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4.340, p=.362$  |           |            |                         |           |            |            |
| 좋은<br>감정                  | 전혀그렇지않다     | 1(1.0)                  | 1(1.1)    | 2(1.1)     | 2(2.3)                  | 0(0.0)    | 2(1.1)     | 4(1.1)     |
|                           | 그렇지않다       | 7(7.3)                  | 2(2.2)    | 9(4.8)     | 2(2.3)                  | 2(2.2)    | 4(2.3)     | 13(3.6)    |
|                           | 보통이다        | 35(36.5)                | 14(15.2)  | 49(26.1)   | 35(40.7)                | 22(24.4)  | 57(32.4)   | 106(29.1)  |
|                           | 그렇다         | 37(38.5)                | 40(43.5)  | 77(41.0)   | 28(32.6)                | 46(51.1)  | 74(42.0)   | 151(41.5)  |
|                           | 매우그렇다       | 16(16.7)                | 35(38.0)  | 51(27.1)   | 19(22.1)                | 20(22.2)  | 39(22.2)   | 90(24.7)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18.897, p=.001$ |           |            | $\chi^2=9.283, p=.054$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3.795, p=.434$  |           |            |                         |           |            |            |
| 음악<br>능력<br>향상            | 전혀그렇지않다     | 1(1.0)                  | 0(0.0)    | 1(0.5)     | 4(4.7)                  | 1(1.1)    | 5(2.8)     | 6(1.6)     |
|                           | 그렇지않다       | 8(8.3)                  | 3(3.3)    | 11(5.9)    | 2(2.3)                  | 2(2.2)    | 4(2.3)     | 15(4.1)    |
|                           | 보통이다        | 43(44.8)                | 23(25.0)  | 66(35.1)   | 38(44.2)                | 23(25.6)  | 61(34.7)   | 127(34.9)  |
|                           | 그렇다         | 34(35.4)                | 41(44.6)  | 75(39.9)   | 29(33.7)                | 48(53.3)  | 77(43.8)   | 152(41.8)  |
|                           | 매우그렇다       | 10(10.4)                | 25(27.2)  | 35(18.6)   | 13(15.1)                | 16(17.8)  | 29(16.5)   | 64(17.6)   |
|                           | 전체          | 96(100.0)               | 92(100.0) | 188(100.0) | 86(100.0)               | 90(100.0) | 176(100.0) | 364(100.0) |
|                           | 성별 $\chi^2$ | $\chi^2=16.338, p=.003$ |           |            | $\chi^2=10.402, p=.034$ |           |            |            |
| 학교수준별 $\chi^2$            |             | $\chi^2=6.330, p=.176$  |           |            |                         |           |            |            |

##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클래식음악의 활성화 및 학교교육측면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제공을 통해 새로운 발판을 열고자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음악관심과 관심음악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60%가 넘는 응답자가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관심있는 음악으로는 대중음악의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다른 여러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음악 관심도를 평균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대중매체에 노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이 대중음악인데, 이는 강렬하고 트렌디한 사운드, 화려한 무대와 스타를 앞세워 청소년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적인 음악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는 클래식음악이나 국악과 같은 음악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흥미가 덜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박외자(1997, p. 3)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보다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지 알기 전에, 또는 어떤 음악이 보다 질 높은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기 전에 일시적인 기호에 따라 선택된 오락적인 음악만을 듣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규교과 이외에 음악교육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77%-99%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14%에 해당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상반되게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관심, 선호도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음악교육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학교급별보다는 성별 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음악교육 경험률이 높았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98.9%가 음악교육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경험 종류로는 악기레슨을 통한 음악교육 경험에 70% 이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규교과 외 클래식 음악교육은 대체로 악기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클래식악기를 다루어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악기 경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외자(1997, p. 23)의 연구에서의 악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

과 여학생의 비율 각각 56%, 87%과 민은기(2000, p. 14)의 연구에서의 남학생 55.5%, 여학생 85.2%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연주 해본 악기로는 중학생 전체, 고등학생 전체 모두 ‘피아노’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민은기(2000, p. 17)의 연구에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선호되는 이유를 피아노가 화성악기이므로 다른 선율 악기에 비해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 대해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기초교육을 위해 가장 적당한 악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외자(1997, p.24)의 연구에서 연주경험이 있는 악기에 피아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학생 57%, 여학생 83%의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남학생 49%, 여학생 50%, 고등학교 남학생 37.2%, 여학생 3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피아노에 편중되었던 1997년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악기를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청소년들의 연주회 관람경험에서 ‘경험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교수준별, 성별로 26.7%-57.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외자(1997, p. 20)의 연구에서 제시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87%, 여학생 82%가 ‘경험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이영숙(2011, p. 50)의 연구에서 78.3%가 ‘경험없다’고 도출된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관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상기 연구들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청소년들이 직접 연주회장으로 가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학교 음악 수업 혹은 개인적인 음악레슨을 통해서 배웠던 음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해 들어왔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라이브 공연의 묘미를 몸소 체험하고, 공연장에서의 에티켓과 규칙을 배우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음악공연 관람의 교육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까닭에 많은 중, 고등학교에서 연주관람 후 감상평을 쓰는 방학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겨냥하여 특히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음악회들 중 많은 경우가 해설을 곁들여 청소년들에게 좀 더 쉽게 서양음악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의 연주관람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주회 관람 동기는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 모두 ‘부모님이 추천해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김초은(2011, p. 5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부모님의 권유’가 41.6%로 나타난 점과 민은기(2000, p.

17)의 연구에서 음악학습의 동기에 대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라고 남학생 70.8%, 여학생 42.6%가 답한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클래식음악이 청소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각박한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클래식음악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송이(2012. p. 6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음악교육 및 음악활동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과정으로 간주하면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주교과 교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음악활동 및 교육을 주교과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음악회 관람을 포함한 음악활동 전반이 부모님의 권유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역시 적극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연주회 관람 동기에서 성별간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서 연주에 관람을 하는 경우로 본인 스스로 연주회를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7%에 그쳤으나, 여학생의 경우 자발적인 연주관람에 응답한 경우가 약 13-14%나 차지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연주회 관람에 수동성을, 여학생은 능동성을 보였다.

연주회 관람장르는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 모두 ‘오케스트라연주회’, ‘독주회 혹은 독창회’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외자(1997, p. 21)의 연구에서 ‘관현악 음악회’, ‘실내악’, ‘독주회’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연구에서 모두 ‘오케스트라 연주회’, 즉 ‘관현악 음악회’가 강세를 보였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음악감상 방법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여학생들은 소장하고 있는 음반을 듣는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진(2007, pp. 32-33)의 연구에서 스스로 서양고전음악을 감상한 학생들의 감상방법 분석 결과 ‘인터넷’, ‘TV/라디오’, ‘보유음반’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의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역시도 인터넷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박수진(2007, pp. 44-49)도 언급하였지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식음악 프로그램들이 뉴미디어, 대중매체에서도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수업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와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직에 있는 교사나 부모가 관련 프로그램, 사이트 등을 잘 숙지하여 청소년

년들이 보다 쉽게 클래식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클래식음악 감상 이유를 ‘마음에 안정을 준다’, ‘기분이 전환되고 명랑해진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오륜(2001, pp. 34-35)의 연구에서 음악을 들을때 ‘정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진다’의 응답과 ‘정서순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의 비율이 높은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연구자는 클래식음악의 탁월한 가치성, 예술성을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고, 클래식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청소년들에게 정서 발달과 건전한 사고의 육성, 건전한 정신세계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 높은 학교 음악 감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권오륜, 2001, p.36) 언급 하였다. 또한 박지연(2011, p. 11)의 연구에서도 중, 고등학생의 클래식음악 감상 느낌이 ‘정서순화에 영향을 미친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과중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입시라는 큰 관문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더욱 경쟁적인 학업의 현실에 놓여있다. 이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 감상이유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를 선택한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로 부터의 탈출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방성아(2012, p.27)의 연구에서는 클래식 음악감상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으로는 학교급별, 학교급별 성별 모두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음악’에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해 지며 감동을 느끼며, 클래식음악의 감상으로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통계조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희원, 1986, p. 22).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들 또한 남, 녀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클래식음악을 정서순화와 고상한 인품형성, 그리고 교양 함양에 도움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서는 클래식음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남옥(2001, pp. 14-19)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연구에 의하면 학교 음악시간에 적극적인 참여 정도, 음악시간을 좋아하는 정도, 음악 수업에서 음악감상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정도, 학교 음악이론 학습이 음악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정도 이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의 답변 중 클래식음악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과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고 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은정(2010, p. 38)의 음악교육에 대한 중, 고등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 음악교과의 필요성이 대체적으로 ‘보통이다’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상기연구는 음악교육 전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이고, 본 연구는 클래식음악 필요성에 대한 결과이기에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중, 고등학생이 음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음악전반에 관심도와 교육정도가 높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도 또한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대중음악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클래식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직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2009년 교육과정 자율화로 중,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배우지 않는 학년이 생기고, 음악 수업시수를 줄이는 학교가 많아진 것이 현재의 학교 음악교육의 실정이다. 이것은 곧 올바른 음악교육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육의 주목적이 일차적인 지식 습득에 머무는 입시를 위한 도구가 아닌 창의력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춘 인재양성이며, 이러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악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음악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학교에서 최소한의 음악수업 시수가 확보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학년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교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클래식음악을 무조건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개선시키고, 클래식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지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수업에 활용하고, 이론에 치우친 수업보다는 음악감상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학교 수업 이외에 청소년들이 직접 연주회에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좋은 연주회를 많이 추천하며, 필요에 따라 단체관람 등의 기회를 넓힐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규교과 외 음악교육이 대부분 악기레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에서 방과 후 음악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많은 클래식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과정상의 문제점과 도출된 개별 결과들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내용들을 제언해보면, 우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클래식음악을 보다 쉽게 인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음악의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시간을 통한 클래식음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음악의 인식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클래식음악 인식도 척도개발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클래식음악 인식도 척도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척도들은 대부분 명목척도로만 구분되어 있어 그 현황만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여러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선정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중, 고등학생으로 한정지어 수행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인식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권결 (2004). 중국대학생들의 클래식음악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한 비교연구: 북경, 장춘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오륜 (2001). 음악 감상 수업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김남옥 (2001).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의 음악수업 성향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김봉순 (2007). 클래식 음악 감상이 중학생의 사회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김정미 (2007).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 감상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주경 (2007). 클래식 음악청취가 중학생의 시험에 따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진옥 (2006). 청소년 클래식 음악 감상을 위한 동기유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김초은 (2011).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실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현주 (2010). 중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서울시 5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민은기. (2000). 한국음악교육의 성차별 문제에 관한 연구. 음악이론연구, 제5집, 10-17.
- 박미라 (2010).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 감상영역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선미 (2003).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선미 (2008).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 스트레스, 우울 감소를 위한 음악 및 명상의 치료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수진 (2007). 학교음악수업이 학생들의 능동적 감상에 미치는 영향: 서양고전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박외자 (1997).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클래식음악 선호도 검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재성 (2000). 음악교육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연구: 합창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지연 (2011). 음악수업에 대한 중, 고등학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방성아 (2012). 음악감상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백영미 (2009).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청소년 음악감상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송주승, 정혜명. (2010).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인식에 관한 현황 조사 연구: 18세-24세를 중심으로. 음악연구, 45호, 115-130.
- 신재롭 (2011). 효과적인 서양음악 감상수업을 위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연구: 2007 개정 7차 교육과정.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심희옥.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한국아동학회지, 제 16집 1호, 22-27.
- 안종배. (1991).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성아 (1997). 음악선호도와 인성특성과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영숙 (2011). 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이희원 (1986). 음악 감상교육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임성은 (2006).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청소년 학습 방안 연구: 클래식 광고 음악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임은정 (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육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조영선 (2008). 심리적 안정감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클래식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화를 활용.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한송이 (2012). 음악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남 학부모의 의사결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허용순 (2006). 클래식 음악 감상이 중학생의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ABSTRACT

# A Study on the Youths' Recognition About the Classic Music

Hong Jee-Yo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youths' recognition of Western music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ways of promoting the listening to and understanding of Western music among young people.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364 students at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uch methods as frequency analysis in application of SPSS WIN ver. 18.0, chi square test.

The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80%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experienced musical education. The experience of musical education included musical instrument lessons, musical theory lessons, vocal music lessons, and composition lessons in the order. About 80%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music. The genres of music included pop music and Western music in the order.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asons of listening to Western music and going to concerts depending on the gender and school years, it turned out that as for gend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regarding the motivation of going to concerts only. As for school years,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groups regarding the reasons of listening to Western music, experience of going to concerts, motivation of going to concerts, and genres of concert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playing the Western music instruments and desired musical instruments depending on the gender and school years, it turned out that as for gender, significant different was found regarding experience of performance, motivation of performance,

instruments that were performed, whether there was a specially desired instrument, and desired instrument items. As for the school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s,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ly regarding the experience of performance.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appreciation of Western music between genders and among school years regarding, it turned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feelings and recognition of Western music after appreciation. As for school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s,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regarding the ways and times of appreciation.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recognized necessity of Western music depending on the gender and school years, it turned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regarding the recognized necessity of Western music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different school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s.

key words : youth, classic music, recognition

투고일: 2013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4년 1월 3일(1월 14일), 게재확정일: 2월 5일